**이름**

최종욱

* **블로그나 브런치,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 활동명과 아이디,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
* **제출 글 1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q94n4Ziz\_5\_일기가 쓰는 일기.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q94n4Ziz\_7\_일기가 쓰는 일기.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 제 글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신선하고 뜻깊은 첫 경험을 했던 글입니다. 처음이고 낯설어 글이 아주 서툴지만 그런 모습도 감추고 싶지는 않기에 전시하려 합니다. 일기를 하나의 친구로 생각하였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훗날 기쁨은 행복으로 슬픔 또한 추억으로 남겨 줄 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잔디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흙

* **제출 글 2 PDF - 문단 배치, 연갈이, 행갈이 확인 목적**

[q94n4Ziz\_16\_밤바다의 별.pdf](javascript:void(0);)

* **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 텍스트 추출**

[q94n4Ziz\_18\_밤바다의 별.hwp](javascript:void(0);)

* **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 처음 나이라는 주제를 정하였을 때 많이 고민해보았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숫자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의미한 세월을 보낼까보다는 그냥 지금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써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사회 활동이 침체된 지금 제 글을 읽고 흘러가는 시간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가장'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아스팔트

* **흙, 잔디, 아스팔트,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두번째로'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

시멘트

* **작가인터뷰 - Q1.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적사항 제외)**
* 글이랑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이 친구를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여 내 친구로 만들려 하는 작가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작가 최종욱입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2.**

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 **작가인터뷰 - Q2.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 여태 살아오며 많은 글을 접해왔지만 처음 제 마음을 움직인 막스 자콥의 ＜지평선＞이라는 시를 접하게 되었을 땐 정말 30분 정도를 멍하니 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취 총에 맞은 것처럼 짧은 시 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아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도 문장 하나에 세상을 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제가 담아 놓은 걸 모두 꺼내어 주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 **작가인터뷰 -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 Q3**

당신에게 글이란?

* **작가인터뷰 - Q3. 위 질문에 대한 답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 저에게 글이란 저만을 바라봐 주는 인싸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취미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있는 터라 글과 꼭 붙어 지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보지 않다가도 다시 글을 보게 되면 저만을 기다리며 저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인싸 친구답게 다른 사람의 얘기도 많이 해줍니다. 덕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받은 만큼 제 얘기를 글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다른 이들에게도 저를 들려주겠죠. 그래서 더 고마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 **작가인터뷰 - Q4. 맺음말 -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

끝으로 부족한 저의 서투른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멋진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